





차 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성대히 진행**..... 20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선결과 의지를 과시..... 26

9월의 명절을 크나큰 금지와 환희속에..... 30

**날로 훌륭히 강화발전하는
불패의 조종천선**..... 3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35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북남수뇌상봉**..... 36

려명거리의 아침..... 5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은 공화국의 전면적부흥을 안아 오기 위한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넋과 필생의 념원이 어린 공화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갈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글 김선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9월 9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에 도착하시어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는 순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주석단과 주석단특별석에 등단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모리따니이슬람 공화국 대통령,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 제1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열병종대들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부수상, 아랍사회부총장 지역부비서, 로씨야연방평의회 의장이 주석단에 초대되었으며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과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대표단 단장들, 특사, 인사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연설을 하였다.



열병지휘관의 지휘차를 선두로 주체적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종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열병행진이 시작되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중대와 중앙보안간부 훈련소중대, 38경비대중대에 이어 조선인민군의 여러 군종, 병종부대 중대들과 각급 군사학교중대들, 혁명학원중대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중대들이 용기백배하여 경축의 광장을 활보하였다.

주석단앞을 지나는 열병중대들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병대원들이 터쳐올리는 우렁찬 함성이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쳤다.

백승의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기계화중대들이 군악에 맞추어 광장을 누비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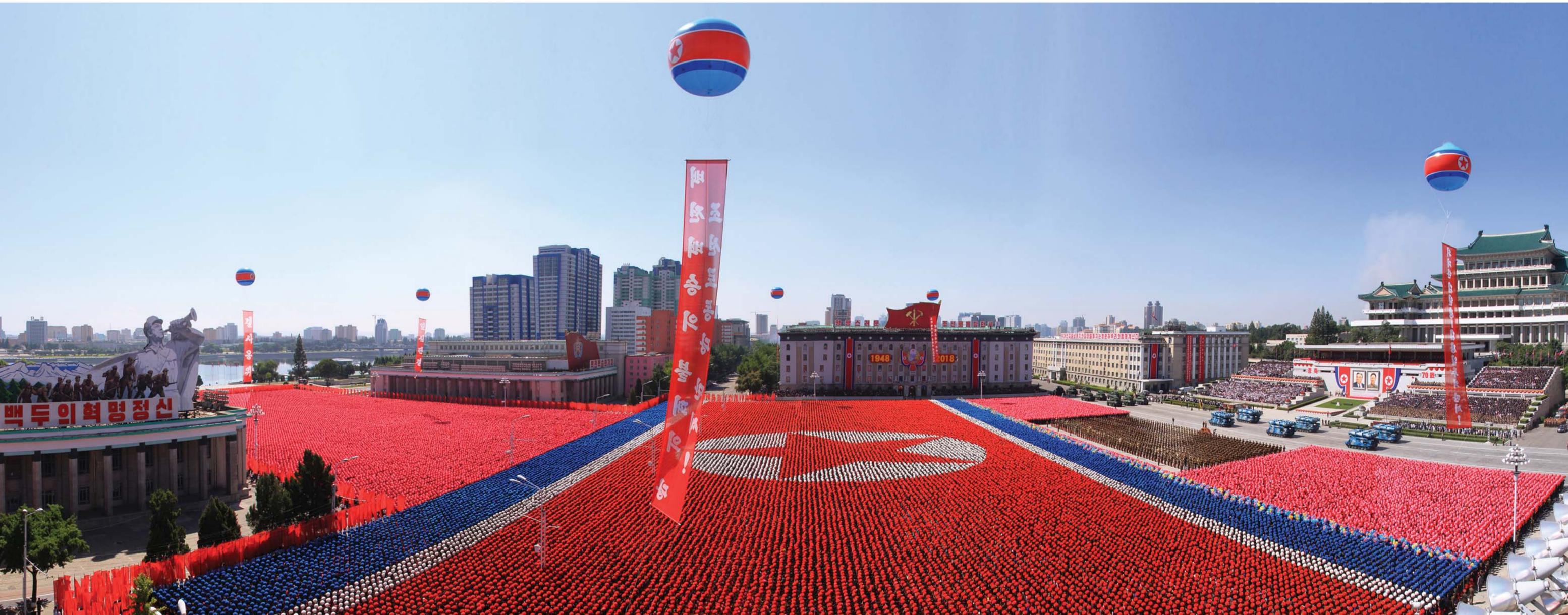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었다.



김일성광장상공에 삼색연무를 뿌리는 비행기들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영예로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기세높이 나아가는 기계화중대 열병대원들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주체조선의 역센 기상을 시위하며 공화국 기폭대렬이 《빛나는 조국》, 《조국찬가》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물결쳐가고 《경축 9.9》라는 글발이 광장바닥에 새겨졌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이날 열병식참가자들은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하면서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리광성, 리명국, 홍광남, 안철룡, 김윤혁, 김성철, 방은심 글 리기송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공화국의 70년 역사와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이며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군중시위참가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월 9일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중앙위원회,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자》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가 열리고있는 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는것은 우리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민족사적대경사이

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강성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오랜 세월 근로대중의 진정한 국가정권을 갈망하던 조선인민의 숙원을 빛나게 실현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천재적인 예지와 불면불휴의 령도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공화국을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영남동지는 공화국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면적부흥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혁명적본래를 고수하며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있고 노도로 솟구치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이 있으며 자력으로 다져온 반복의 토대가 있기에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는 오늘이 있고 더욱더 룡성번영할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이 있다는것이 공화국이 새겨온 70년 력사의 빛나는 총화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영남동지는 혁명의 전진을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승리봉을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빛나는 조국》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사진 리광성 글 강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성대히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9월 9일 5월1일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향하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 특사, 인사들,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

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해외동포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았다.

력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 헤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질풍쳐나아가는 공화국의 위상을 안고 《빛나는 조국》의 제명이 경기장의 상공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가운데 매혹적인 예술의 세계가 드넓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서장 《해썬는 백두산》과 《사회주의 우리 집》, 《승리의 길》, 《태동하는 시대》, 《통일

삼천리》, 《국제친선장》 등의 장으로 구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공화국의 건국과 수호, 창조와 변영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과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며 백승의 한길로 승승장구해온 주체조선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거창한 전변의 력사가 창조되는 공화국의 벽찬 현실과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조선민족의 지향,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열망 등을 음악과 무용, 체조와 교예, 대규모의 배경대와 조명, 무대장치 등의 조화로 훌륭하게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환희로운 예술의 세계로 펼쳐보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종장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네》로 절정을 이루었다.

특색있는 체조와 예술적형상으로 생긴 열정과 신비로움을 안겨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더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올랐다.

사진 리학명, 안철룡, 홍광남 글 문광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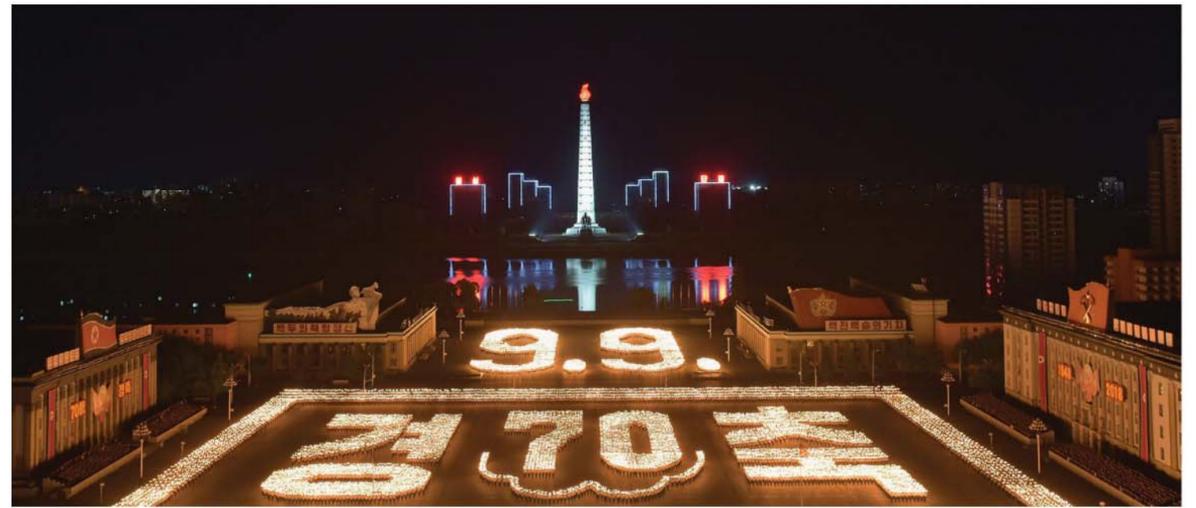






대 집 단 체 조 와 예술 공연은 이 체 료운 음악과 무용, 체 조와 교예, 대 규 모의 배경 대 와 현대 적인 조 명 과 무 대 장 치 등 의 조 화로 공 화 국 의 건 국 과 수 호, 발 전 력 사를 실 감 있 게 보 여 주 었 다.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가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해불야회시작이 선언되자 야회장에는 공화국창건일을 경축하는 《9.9.》, 《경축 70》이라는 글발들이 새겨졌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신 무개차가 활활 타오르는 해불봉을 든 청년전위들의 용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청년학생들은 해불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기고 태양도형을 형상한데 이어 조선로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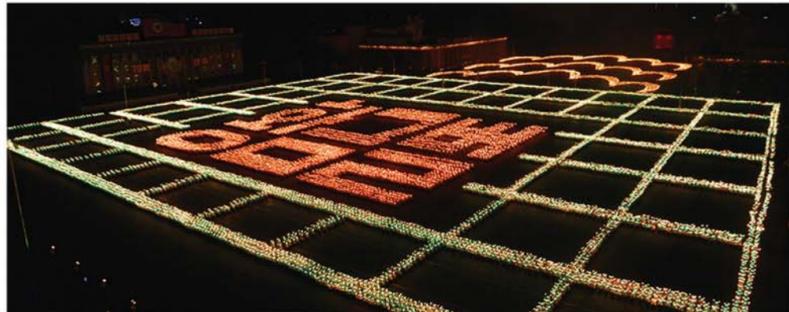
마크, 공화국기도형과 《김정은시대》, 《최고령도자》, 《승리의 기치》 등의 글발을 련이어 펼쳐놓았다.

군중들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70성상과 더불어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적 거인,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억세게 키운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의 력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해불대오들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해불야회마감을 뜻깊게 장식하고 야회참가자들이 터치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 소리가 야회장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사진 박창복, 김성철, 안철룡 글 박병훈





부강조국건설의 진군길을 걸어온 청년들의 역센 기상과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내달려갈 의지를 보여주는 청년학생들

9월의 명절을 크나큰 긍지와 환희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여 중앙사진전람회 《승리와 영광의 70년》, 국가도서관, 국립교향악단음악회 《사회주의교향곡》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조국강산에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크나큰 환희와 격정을 안고 조선인민은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앙연구로토회가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다.

공화국을 창건하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적풍모,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영광의 한길로 걸어온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는 중앙사진전람회, 국가미술전람회, 국가도서관전람회 등이 진행되었다.

9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공화국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과 특사들, 대표들, 대표단성원들, 외국손님들,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성원들, 해외동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다.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인민의 노래, 사회주의찬가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창조형상하여 환희로운 경축의 무대를 펼쳐놓았다.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립교향악단음악회 《사회주의교향곡》에서도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을 강대하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을 독특한 3관관현악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각 도들에서도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새 우표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인 료전서동지와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료전서동지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예술인들을 축하하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날로 훌륭히 강화발전하는 불패의 조종친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로 조선을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료전서동지를 접견하시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료전서동지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반갑

게 상봉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후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종 두 나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조종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선택이고 절대불변의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습근평동지와 이미 합의한대로 고위급래왕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여 그 누가 건드릴수 없는 특수하고도 견고한 조종관계를 보다 굳건하고 심도있게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전서동지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의 강화발전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식없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친선의 정을 안고 조선을 방문한 중국의 귀빈들을 환영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9월 10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동지께서 불전서동지

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전서동지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예술인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불전서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글 리기송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왈렌찌나 이와노브나 마뜨비엔꼬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마뜨비엔꼬의장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장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기념촬영을 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젠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마뜨비엔꼬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뿌젠대통령과 로씨야인민의 이름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와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귀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경축 행사들에 로씨야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젠대통령이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축하의 인사와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과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과 정부, 인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과 담화하시면서 조선반도지역정세에 대한 로씨야지도부의 의중과 립장을 청취하시고 정세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조선반도지역과 세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데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 해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선대지도자들이 마련해주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의회호상간 협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두 나라 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지가 피력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뜨비엔꼬의장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체류기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글 김선경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북남수뇌상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맞이하시였다. 주체 107(2018)년 9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18일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외무상 리용호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룽군대장 김수길동지, 인민무력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주체107(2018)년 9월

특근대장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동지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오전 10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북남수뇌분들께서는 근 4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옹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비행장까지 나오시어 따듯이 맞이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대통령의 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특별수행원들인 각계 인사들 그리고 기자들이 함께 왔다.



환영의식이 있던 다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었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명의 시민들이 동포애의 정을 안고 환영하였다.
 역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9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본부청사를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회담에서는 관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은 올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두차례의 상봉과 회담이후 긍정적으로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 북남관계상황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호상 관심사로 되고 있는 중요문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이날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께서 대통령내외분과 함께 공연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었다.

회담에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리행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지가 다시금 확인되고 그를 실행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이 정립되었으며 북과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가지 실천적조치들이 합의되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이 극화되던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9일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으며 그와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이날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이 땅우에 후손만대에 물려줄 하나된 조선을 일떠세울수 있음을 감명깊게 보여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9월 20일 아침 백두산탐승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은 수도의 연도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삼지연 비행장에 나오시어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2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어 웅장중대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조선민족의 넘과 기상이 어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새시대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정에 오른 력사의 순간을 기념하여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었다.

천지에도 내려가시어 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 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역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9 월 평 양 공 동 선 언

②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연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해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울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

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10. 4선언발표 11돛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 1인민봉기 100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켓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 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냉변핵시설의 영구적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9월 20일 오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로에 오르는 문재인대통령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였다.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9월평양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천지호반에서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삼지연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의 못가에서 산책하시며 환담을 나누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듯이 바래워주시였다. 주체107(2018)년 9월



